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9년 6월 2일 (수) 제741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필 편집인 조규환 주간 고영호 편집장 임승희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061-4151, 062-71208 외대복합기서실 (서울)061-4152, 4466 FAX 061-4183 (통인)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용인리 신 8

7기 한총련, 평화적 출범

민주단체 지지속에 치러진 축제의 장 평화적 출범으로 이적·폭력성 시비 일축

“출범식이라고 하면 구호만 외치는 딱딱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한편 놓고 모두가 함께하는 출범식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대학생들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멋진 축제는 다시 경험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한총련만이 할 수 있는 대축제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진행된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한 고려대 통계학과 세대의 말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행사 시작 며칠 전부터 출범식 개최에 주저했던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시에 주 요 대학에 공권력을 투입, 학교를 완전 봉쇄하고 불법불법집회를 저행하는 김 대중 장군을 규탄하며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출범식을 개최하기 위해 경희대에서 출범식을 진행, 7기 한총련의 뜻을 올렸다. 4000여명의 학생들이 한 칸 어우러지는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한총련 출범식 개막제는 말 그대

로 대동의 장, 축제의 장이었다. 각 지역노래단의 공연과 이에 맞춰 계속되는 학생들의 율동, 참가자 전원이 펼치는 화려한 '리타이로'와 '괴도타기'는 개막제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민권공화국, 전국칠거리민연 합, 경희의료원을 비롯한 의료노조 조합원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 가협), 한총련학부모협의회(한학협), 우육노조회를 비롯한 여러 장기수, 임시 수 후원회 등 많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한총련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개막식에 참석, 범선상부한 민주중대의 장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민가협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과 함께 어깨걸고 환호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청년학생들을 자꾸만 격오하고 하는 정부가 정말 싫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내지르는 학생들의 함성

속에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발세 진행될 개막제를 마치고 출범식 이틀째를 맞이한 학생들은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출범식 등을 진행했다.

전남대 세내기 박준서 군은 “몇시간 진을 지지 못했지만 아예의 감동 때문인지 피곤을 잊었다. 친구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같이 힘내고 있다”며 출범식은 평화적으로 꼭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각 사회단체는 경희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와 한총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대중 장군은 이러한 각계각층 민중들의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본래 행사를 시작하면 곧장 경찰타격했다”며 위협, 긴박한 상황을 전개시켰다. 이에 한총련은 “어떠한 행동에도 철저한 비



총동문회장 후보추천 난항

우리학교 총동문회장 후보를 선임하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금) 총동문회 운영이사단은 엑스호텔에서 운영이사회를 열고 차기 동문회장 후보를 선출했다. 최동호(영어 57)와 함께 김현옥(독일인 57)가 후보로 나오자 운영이사회는 두사람에게 투표를 실시했으나 예상치 않은 문제 발생으로 투표장이 봉인되어 개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 재단 사태 때 천 박승준과 로 분류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김모씨, 정모씨, 기모씨 등이 운영이사회에 참석해 특정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밝혀져 동문회장 선출문제에 앞으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운영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의 대의 원충화를 통해 최종선임을 받아야되나 후보가 한 명만 있는 셈이어서 사실상 운영이사회에 결정권을 최종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운영이사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학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동문회가 이제는 서로 싸움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경신 기자

▶관련기사 8, 9면

류재식 기자



일상을 넘어선 지성인들의 합성

▲지나주는 대동제가 한창이었다. 그날 밤은 주점이 많지 않았지만, 각 단대별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를 해 서있던 지대들 곳곳에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 오렌지엔 활기 넘치는(?) 교풍이었다. 서울배움터의 ‘넌’이라는 수비(별을 누르면 아주 마나가 담 너머로 물건을 가져다준다)에서 살 것 있어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미 와서 기다리는 선·후배 관계로 보이는 수 학생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잠시 엿들고 하자, “형 자는 사실 상수를 썼는데요. 요즘 외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생활 하는 것도 좋아요. 같이들도 친구라고...” 그러자 선

배가 하는 말 “짜짜! 사내가 팔을 뽑았으면 무리도 배이지... 4수해라, 요즘 5대 아니면 대학 나와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전화를 받았다. 모신문사에서 ‘모습 향상해는 여학생의 활동력’에 대해 기획하고 있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질문중에는 ‘대학에서 여학생의 활동력에 비해 남학생의 활동이 줄어든 원인’에 대한 것이 있었다. 참 이상한 질문도 아니냐 하면서 답한 내용은 이렇다. “남학생들이 취업이나, 군대 등 현실문제에 예전보다 꽤나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몇 시간 되지 않은 간격으로 전화한, 요즘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단상들이었다.

▲그런데, 지난 양배움터에서는 대동제가 열렸고, 우리학교 열 경희대에서는 전국대학생들의 축제의 장인 한총련 출범식이 열렸다. 아직 대동제는 각 프로그램마다 ‘학부별 체제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민중연대를 위한...’ 등등의 이름이 붙은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한총련 출범식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물론 더했다. IMF

를 앞세운 경제침탈과 5027 신작전계획을 앞세운 한반도 전쟁준비를 자행하는 미국대, 민중의 생존권을 아랑곳없이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우리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사대매국 김대중 정권 퇴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하자는 내용들이었다. 각 개인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젊은 지성인들의 합성을 실컷 들을 수 있었다.

▲다시, 당동 수퍼에서의 그 새내기 선배의 말을 이어 “형 그대도 저는 외대가 좋아요, 사람들이랑 술 좀 더 해야겠어요”라며 전혀 모르는 내게 물건을 대신 받아주며 아주 명쾌하게 말을 건넸다 “맛있게 드세요!” 왜 그 말이 내게는 “우리 새대기를 믿으세요,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대의사실을, 바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라는 환영으로 들은 내가 너무했나?

임승희

대동제 아쉬운 폐막

우천관계로 취소된 행사 많아

양배움터 대동제가 서울 지난 27일(목), 용인 28일(금)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동제 기간중 비가 내리 양배움터 모두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등 아쉬움을 남겼지만 다양한 행사와 거리친 등으로 흥겨운 장을 만들어냈다.

▲남재발로 ‘주민학생한마당’ ‘교수·직원·학생 한마당’ 등 일 맞이 한마당’의 주제를 잡아 진행했다. 첫날 주민학생 한마당에서는 지역주민 노래 자랑과 친밀업소 감사장을 실제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을 만드는 장이었다. 둘째날 행사는 우천관계로 취소되었고, 마지막 날 ‘동일한 한마당’은 ‘소리’와 ‘통일’ 기원 퍼포먼스, 대권도부의 분단장벽 깨부

수기에 이어 통일노래 한마당이 펼쳐졌다. 그와, 상설마당으로 율동패 ‘신새벽’, ‘외대스타1999’, 100자 공연이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작년보다 기간을 하루 늘려 4일간 진행했던 용인배움터 대동제는 7원의 어울림, 민중 사랑의 한걸음, 새천년을 준비하는 대학문화의 복원’이란 가치이래 펼쳐졌다.

첫날에는 락 동아리 ‘아웃 사이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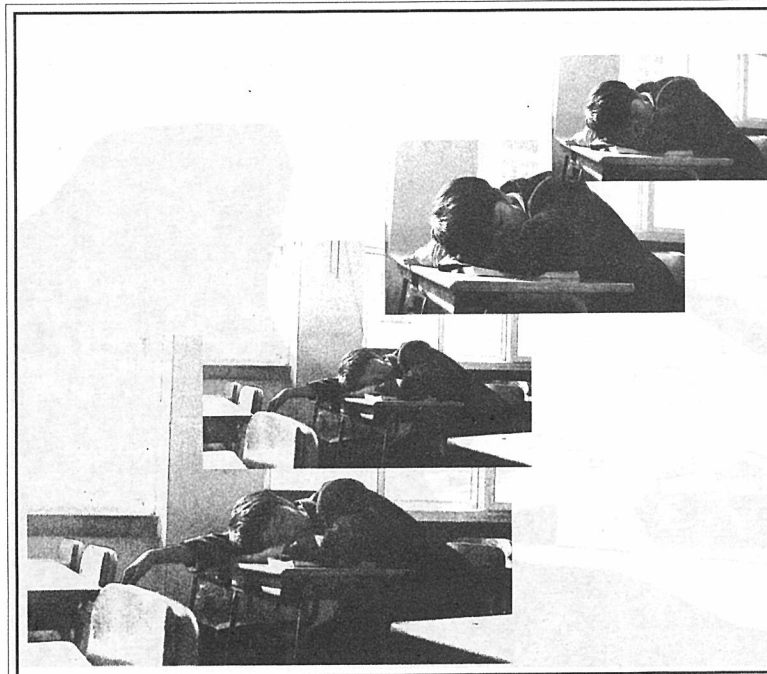
공연, 경향대 노래자랑, 버스콜기 행사가 있었고 둘째날에는 서울배움터와 마찬가지로 우천관계로 많은 행사가 차질을 빚었다.

▲월터의 시연, ‘동대인의 밤’ ‘앞을 연’ 출범식 및 창작대회, 아외연화회 등이 열린 셋째날에 이어 마지막날 한남시 일동노조와 측구시합과 대동놀이로 대동제는 막을 내렸다.

정서윤 기자

6, 7면 대동제 특집

8, 9면 한총련 출범식 특집



왕따가 일났다!

집단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을 왕따라고 부른대요. 경관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서 사람들에게 “재래랑 놀지마!”라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원대회도 원천봉쇄하고, 그들의 출범식까지 막아냈었습니다. ...하지마, 이 왕따들이 일을 냈습니다! 답답하게 그리고, 아주 평화적으로 7기 한총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진정한 왕따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은 아랑곳 없고 해외 매각에도 굴욕외까지 자행하는 IMF정권과 미국 그놈이 이제는 왕따입니다.

민중자주연
외대학보

미·일, 제2의 냉전을 꿈꾸는가

미일방위협력지침 토대로 신 가이드라인,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아시아판 나토전략으로 신냉전 도래시키려는 미국의 음모

‘신 5027 작전계획’과 ‘NSC(한미연합군사훈령)’ 등 한반도를 겨냥한 미국의 전쟁책동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미국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고 이의 일환으로 ‘신가이드라인’ ‘지역미사일방위체계(TMD)’ 구축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어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NATO 전략, 신냉전 도래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 전략의 본질을 살펴보면 이것이 한반도의 위기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고찰해 본다.

명확히 밝혔듯이 그 무대는 한반도다.

“일본 자위대가 지원할 수 있는 미군의 군사적 개입 유형은 한반도를 예로 들어 살펴볼 수 있다. 미군단독, 한미연합군, 유엔군, 다국적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경우든 미군이 참전하면 자위대는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군이 북한을 산재공격하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뜻이며,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행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아니다.



42년 유엔 참전으로 일본이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유엔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스스로 유엔의 존재와 지위를 부정하여 군사 패권을 확대, ‘신냉전’을 도래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위기의 도화선은 한반도에 닿아 있다.

신냉전과 신 NATO 전략을 해부한다

“한미더로 잘라 말한다면 전쟁에 참가한다는 이야기다.”

오자와 이치로 일본 자유민주당은 미일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 포함)과 관련, 법안의 성격이 이 한미더로 규정했다.

그 전쟁의 주요 무대가 ‘한반도’라고 명확히 밝힌 이 법안은 지난 24일(월) 일본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렇다면 일단 미일방위협력지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신가이드라인은 한반도의 위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한반도 위기상황, 미국이 판단하고 일본이 움직인다

96년 4월, 미일양국은 ‘신안보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97년 9월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지침’ 합의와 주변유사의 영역에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포함, 그리고 전역미사일방위체계(TMD)구축의 확정 등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방위정책 기본개념을 ‘우사시에도 대응하는 전방위전략’으로 바꾸고 신가이드라인과 관련 3개방안인 주변위협대응,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물품무상조세공급협정 등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전방위전략’이란 주변위협대응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핵심으로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력분쟁이 일박한 경우 △정치체제의 혼란으로 난민이 일본에 대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웃나라에서 내전, 내전 불의 사태가 발생해 그것이 순수 국내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것으로 확대될 경우 △일본 주변지역에서 무력 분쟁 그 자체는 일단 발생하지만 여전히 질서외적 폭 등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일본의 군사력을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더로 요약하면 ‘일본이 판단했을 때 위험한 경우라면 군사력을 직접 개입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군사행동의 명분이 법률적으로 확보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자신의 군국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무대는 어디인가? 일본 스스로가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전략

지난 22일(토) ‘한국방위연구원’이 작성한 ‘미일신방위협력지침과 한반도 안보 영향’이란 내부 보고서는 “미일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통과로 한반도는 물론 대만해협까지 일본의 군사적 개입 범위가 확대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경쟁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5월 22일자 중앙일보)

이와 관련 중국의교부는 지난 27일(목)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일본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를 무시하고 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노린 관련법안을 가결했다”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전에 새로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북한도 26일(수)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방위지침법안이 성립할 경우 미일간의 군사적인 결탁이 더욱 강화돼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일본내에서의 여론 흐름도 순탄하지 못했다. 전쟁은 싫다. 한미 9조를 지켜라. 신가이드라인법 반대 여성 대집의 준비회 ‘신가이드라인과 그 입법화에 반대하는 국민연합회’ 등 일본내의 많은 단체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게 하는 미일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로 일본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이의 본질을 대해 강경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미일신안보지침은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세계를 지속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는 의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초재국주의적 세계재편 기도는 일본은 앞잡이 역할을 지원하고 나서며 희화화하고 있다. 이에 답달아 우리 김대중 정부는 한일 군방 당국간 회담인을 개설하고 99년 8월에는 제주도 동쪽 해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해상훈련을 확정시켰고, 한반도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주변위협대응이나 자위대법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논평을 내어 ‘대미에속죄’ 추종과 방위강화를 상실한 한탄

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TMD, 제2냉전시대 공포

미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적용, 일본은 물론 대만까지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계속 진행중이다.

지난 4월말, 미 국방부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TMD’ 구상에 관한 보고서를 틀 미 의회에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북한의 지고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조기의 개량형 패트리어트(PAC)를 배치하거나 해상발사 하층용 미사일 11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4월 30일자 한겨레신문)

이에 대해 중국, 북한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제3세계 국가들은 ‘80년대 동사냉전을 격화시켰던 ‘스타워즈’의 재현이라면서 ‘제2의 냉전시대’의 개막을 공포한 것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순우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는 세계의 전략적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성명을 통해 “전역미사일방위체계는 중요한 국제법정들이 수년간의 아묵한 전략적 안정 뿐 아니라 핵무기 규제의 모든 과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

동북아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 자신의 미사일 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사일 체제의 확립으로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미국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역미사일 방위체제의 주축을 “북한”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상태에서 그 전쟁도화선의 불길 이 한반도로 향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한반도, 외세의 전쟁무대로 전략하는가

삼보보았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계획을 ‘신5027 작전계획’이나 ‘NSC’ 군사훈령에서 실현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강도높고 실질적으로 높여 가고 있다. 한반도 전쟁책동이 미일 두 의세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민권공대위’ 등 각계 사회단체들은 통과 발효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념이 자위적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특히 주변

사태의 발위가 불명확하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내정사건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의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의 실행여부 판단은 미국과 일본의 관료들 손에 맡겨져 있고 대성지역인 한국은 그들에게 논의의 투명성과 사전 협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임은 물론, 미일간에는 이미 ‘한반도사태는 사전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맺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와 판단에 따라 언제든 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5월 24일자 한겨레신문)

여기에 김대중 정권도 합세해 외세의존과 공존의 모습을 통해 한반도 전쟁책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외세의 전쟁책동으로 인한 한반도 전민족의 고통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 ‘자주권 회복’의 문제는 가장 시급히 제시되고 있다.

학술부

대학별교 제6경명 증명권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젊음으로 갈 수 있는 길

증강과 더불어 맞이하는 여름방학 -
숨가쁘게 지나온 1학기의 수업들은 끝났지만,
자신이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수업은 시작입니다.
전혀 색다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여름방학은
인생에 있어 더욱 값진 수업이 될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갈 수 없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음은 모든 것이 실험입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여름방학을 기대해 봅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http://www.posco.co.kr>

푸른 점음이 넘쳐난



서울

한나를 통해...
한나를 통해...
한나를 통해...

99 통일 노래 한마당



“가장 높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란 주제의
‘통일노래한마당’ (통노)이 대동제 마지막날(27일)
약 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노원구립에서 열렸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통노는 주제가 학생들의
수습창작곡을 발표하는 장으로 대동제의 노래창작을
대중화시키는 취지로 지난 88년 서울지역통일학생연합에서
제1회, 우리학교에서는 90년부터 시작된 행사다.

상징대 노래 ‘떡볶이’의 ‘반쪽의 기다림’을 시작으로 각과·개인 참가자 14팀이 경쟁을 벌인 이번 행사는 노래의 성수대 기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가팀이 많은 만큼 각과와 융합전 또한 치열했는데 부대앞으로 달려나와 특주를 퍼뜨리고 무대 지붕에 올라가
과기를 흔드는 등의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축하공연으로 ‘우리나라’를 부른 백재경 군은 “여기 모여 통일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노래 한마당이 통일을 앞당기는
저를 기쁘게 한다”라며 통노의 의미를 밝혔다.
심사는 통학생활관, 통학생활 문화극장, 외대노래창작단 단장이 곡의 완성도, 내용성, 가창력을 기준으로 채점했다.
인기상은 행정학과 ‘노래터’ 창단상은 서바버과 ‘여우러림’ 통일상은 이태리과와 ‘새벽울림’ 민주상을 실경대 ‘떡볶이’ 그리고 1등인
저주상은 더위과 ‘더울림’이 각각 수상했다. ‘서로가 다르다고 하나될 수 있단’ 생각 미제는 두리위하지 말고 울기를 내자’는 가사의
‘달아가기’를 발표한 1등은 정치한 더위과와 더울림 제작 조아름(21살)은, “노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외대노래창작단 단장 김태원(사회·신방 4)은, “개인이나 동아리의 참여가 적어 아쉬웠지만 매년 여러 주제의 노래를 발표했던
데 비해 ‘통일’이라는 하나의 주제의 노래를 발표학점이 성과적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주’민선언99, 다시 서는 나의 사랑의대’란 기치로 3일간 열린 서울백목의 대동제는 매년 비례 행사로 통상하고 불거지도 않았다.
남대일로 주제를 잡아 진행하고 각 단별로 대동제 기조어 따른 행사를 펼쳐나갔다.
주요인 대동제 비례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던 점이 성과로 남았다.
서울백목의 통학생활관 이현수(사회·신방 4)군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가 많았다.”
한대인정차량문제에 행사진행이 늦어졌음.
비가와서 행사가 폐기된것은 모쪼록 앞으로의 대동제의 발발성을 절감해가는 대동제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주변학생생활관...학교 앞 골목에서 무대를 설치해 외대원의 지상법기로 시작한 행사는 모범으로 수상(신상·상·학교급) ‘교로’ 주된
아주머니 후 지역주민 노래창작으로 이어지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아버지들의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음식점 아주머니까지
13명이 등장한 노래창작은 신창작을 제한하야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반면 참여자들의 음식물 준비한 무의탁노인·경실각을 무료급식소 홍보부족으로 20여명만이 참석.
준비한 음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수족관 동아리 ‘물누리’에서는 지역주민 상대로 무료 물치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단대, 동아리 행사...서양이라는
‘민중연대 문화제’ 중 마천의 구조조정에 대한 퍼포먼스, 풍물공연, 민중연대주제를 진행했다.
동양이라는 마천의 통상적 역사사적전을 마천, 통상을 장문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 도서관전입로의 ‘마치연발리치’에서는 일본어과와 주변, 인도어과와 수급을 통 강과의 전통을,
물문은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 여학생위원회에서는 기치를 여학생들 사선으로, 법대에서는 북한이 되기 주제를 열었다.

통일 노래 한마당

어른조사 뒤집기

김미은 지음
개미고원
7,000원

아름다운 성찰

김민식·신경림
김민식·박원서
원율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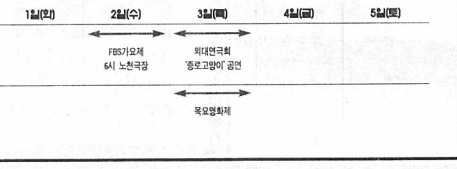
제6회 민족출제전, 춤으로 보는 정보문명

학내 문화행사 일표

어른조사를 다 믿을 수 있는가? 최근 ‘어른조사 뒤집기’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미은씨(32, 미시간대 사회연구소 연구원)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단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친 어른조사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강씨는 이 책에서 어른조사가 실시되는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무렵 우리말과 함께 뒤섞여 들은 일본어, 사춘기를 무성케 할퀴고 간 6·25전쟁, 깊은 피를 뜨겁게 했던 4·19의 함성, 5·16과 유신, 고개속인 중년으로 광주에 대해 침묵해야 했던 80년대... 여기 그 시대를 거친 네 사람의 산문이 있다. 문학을 업으로 삼은 소설가 박완서(88), 시인 신경림(84), 국문학자 김윤식씨(63·서울대), 평론가 김병기(60·문화과지성사 대표). 이 책을 민족문화작가회의가 펴내는 계간지 ‘내일을 여는 작가’의 98년도 기획연재 산문을 책으로 묶은 것. 자신의 삶의 궤적과 성찰을 차분한 어투로 풀어낸 이 책은 한국문학의 한 이정표를 펼쳐보이는 글들의 모음이다.

국가 퍼포먼스 연합이 한지리에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6월 4일부터 7일까지 저녁 7시30분에 ‘정보문명, 세기말 실크로드’주제의 춤공연이 열린다. 그러나 퍼포먼스 연합이 각각의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춤과 함께 내용을 구성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춤공연에서는 처음으로 옴니버스의 형식을 취하여 극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대안드라마, 대안소설을 춤으로 풀어냈다. 극장에서 펼쳐지는 춤공연이 새로운 바람, 보는 맛을 주기 위해 출연하는 단체나 개인의 작업이 만만치 않다. 또한, 연상을 기하기고 하고, 생음악을 연주하기도, 합창을 신나게 추고 신명나는 국관을 여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백목						
구분	학 생			대 학 원 생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일몰요리	
요일						
월 (31일)	문대불국암 (W1,400)	순두부찌개 (W1,300)	감채밥 (W1,500)	북아계국 (W2,300)	대구매운탕 (W2,200)	
화 (1일)	사골두꺼지국밥 (W1,400)	불고기갈비탕 (W1,500)	알감이국밥 (W1,500)	무두어묵국 (W2,300)	한치회갈비탕 (W3,200)	
수 (2일)	근대원장국 (W1,000)	오징어숙회비빔밥 (W1,300)	소고기부대찌개 (W1,500)	황정식 (W2,200)	비트카레라이스 (W2,400)	
목 (3일)	북아계국 (W1,500)	채장밥 (W1,200)	대구매운탕 (W1,400)	조개삼시식국밥 (W2,300)	감치취국담 (W2,400)	
금 (4일)	소고기국밥 (W1,500)	하이라이스 (W1,300)	감치취국담 (W1,400)	육개장국 (W2,300)	황정식 (W2,500)	

음반백목						
구분	어 문 관			후 복 관		
	중심1	중심2	석식	조.중심	복음류	탕
요일						
월 (31일)	카레라이스 (W1,400)	비빔밥 (W1,400)	동대 매운탕 (W1,400)	쇠고기비빔국 (W1,400)	황정식 (W1,400)	육개장 (W1,800)
화 (1일)	간짜리밥 (W1,400)	간짜리 (W1,800)	이육산 백반 (W1,400)	간짜리비빔국 (W1,400)	황정식 (W1,400)	간짜리 (W1,800)
수 (2일)	중국산채국밥 (W1,400)	돼지고기비빔 (W1,800)	쇠고기비빔국 (W1,400)	간짜리비빔국 (W1,400)	황정식 (W1,400)	간짜리 (W1,800)
목 (3일)	삼계탕 (W1,400)	삼계탕과기밥 (W1,800)	황정식 (W1,400)	순두부찌개 (W1,400)	황정식 (W1,400)	삼계탕 (W1,800)
금 (4일)	오징어숙회비빔 (W1,400)	황정식 (W1,500)	간짜리비빔 (W1,400)	간짜리비빔국 (W1,400)	황정식 (W1,400)	간짜리 (W1,800)

성사된 '축제 한마당'

내가 본 한총련 출범식, 이렇게입니다

새내기

"내가 한총련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어요"

한양대 법학과 99학번 김모군

어떻게 출범식에 오게 됐나

법학과 노래 활동을 하는데 출범식 중앙 문예단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왔다. 솔직히 한총련에 대해서 인식도 안 좋았고, 부모님도 한총련과 관련된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 하셔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출범식을 계기로 한총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요구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부정부패적인 인식이 상당히 있었음을 알았다. 분방한 건 한총련 학생들이 조국을 위한 삶을 고민하고 조국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한총련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한총련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멋지고 즐거운 축제는 없을 것"

고려대 통계학과 99학번 박모군

출범식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정말 많이 종속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백만청년학생이 모이는 대동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 뿐인데 이렇게 심하게 탄압하는 정권을 이해할 수 없다. 순수한 단체를 이끄는 학생들이 정말로 좋고 구속시키는 정권이 너무 밉고 너무 억울하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출범식 기간 내내 한총련의 하나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한총련 학생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라이터로 불빛을 만들고 손수건을 흔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총련이라는 조직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라이터 쇼는 정말 장관이었다.

한총련 출범식에 대한 정경과 공연단원의 탄압이 전향과는 관계로 일부 취재원의 실정을 밝힐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민중과 함께하는 한총련 증명해"

건대 행정학과 94학번 박모군

이번 출범식의 성과점이 있다면

그동안 한총련이 원칙과 정도의 길에서 올바른 투쟁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많은 지지와 연대속에 출범식을 성대히 치렀다. 한총련이 백만 청년학생들 뿐 아니라 4천만 민중, 7천만 겨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중조직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새내기들이 한총련 거부감 없애 기때"

광운대 92학번 김모군

이번 출범식에서 느낀점이 있다면

'백만인의 소리'라는 행사를 통해 각 지역의 모방을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민중과 함께 투쟁했는가를 평가한 것은 큰 의미다. 내가 바로 한총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출범식을 통해 한총련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새내기들이 선입견을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다.

시인

"한총련, 요즘 보기 드문 건강한 청년들"

권한오(상업, 43 남)씨

한총련 출범식을 어떻게 생각하나

식구중에 한 명이 경희의료원에 입원중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문앞에서 정경과 대처하는 것도 봤고, 경찰들이 불심검문을 하는 것도 봤다. 평화롭게 행사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가로막는지 모르겠다.

한총련에 대한 생각은

이전에 학생들이 와서 선전전을 해 주는 바람에 많이 알게 됐다. 또 신보라 겹 잡지 노천극장에 가서 출범식 하는 걸 볼 기회가 있었는데 같이 어울리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요즘 보기 드물게 건강한 청년들인 것 같다. 꼭 평화적으로 출범식 성사하길 바란다.

경희대생

"출범식, 우리학교에서 잘 치루세요"

연원정보학부 1학년 이경범

자신의 학교에서 출범식이 치뤄졌는데

출범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매장에 물건이 없고 식당 메뉴도 바뀌는 사태가 있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개최되는 것에 불만은 없다. 출범식을 우리학교에서 잘 치뤘으면 좋겠다.

불심검문에 대한 생각은

오늘 아침에 시험이 있었는데 검문을 3-4번 거치느라고 늦어버렸다. 게다가 선배에게 불심검문은 불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난 후 검문을 당하는 기분이 매우 나빴다. 검문으로 연행되는 친구들을 볼때마다 피가 끓는다.

"내가 나서지 못해도 힘이 되고 싶다"

사학과 4학년 전모양

한총련에 바라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총련의 주장들은 다 맞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나서지 못하더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와주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 출범식이 잘 성사되면 좋겠다.

한총련 탄압에 대한 생각은

학생운동의 대표조직인 한총련을 이직시키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말살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군사독재도 아닌 지금 정권의 공권력 투입, 불심검문, 연행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완전히 축제분위기가...폭력성은 없었다"

사학과 1학년 이지훈

경희대에서 급하게 출범식이 열리게 됐는데

전경이 정문에서 검문하는 것 빼고는 분위기도 좋다. 폭력은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축제분위기가. 화장실 사용의 경우는 비교적 깨끗한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거리에서도 출범식 열렸어요"

정권의 탄압으로 경희대 진입 못한 학생 속출
거리 곳곳에서 시민 만나며 출범식 알리

출범식 기간동안 경희대와 외대주변에서의

연행자만 350명이 넘어서는 정권의 극심한 탄압으로 많은 학생들이 출범식장인 경희대로 미처 들어오지 못했다. 서울로 상경하는 것 자체가 가로막힌 지역학생들도 많았다.

이에 학생들이 거리에서, 지역에서 출범식 성사투쟁을 진행하며 감내중 정권의 본질을 알려 줬다. 또한 출범식 개최를 위해 양심수들은 옥중 단식투쟁도 진행했다.

노학대, 대시민선전전 전개

원천봉쇄로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한 중형, 대구영역, 부산경남, 서울지역 학생 400여명은 지난 30일(일) 대원자동차, 오토보 노조와 함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오후에는 각 지역 총련별로 한총련 출범식 성사와 이적규정 철폐, 감내중 정권 퇴진 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을 만났다.

이날 지역총련에서 뒤늦게 합류해 나타난 600여명의 각 지역 학생들이 지하철 태릉역 부근에서 가두투쟁을 전개하며 한총련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총련원 96학번 한 남학생은 "정권의 공권력으로 경희대안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중과 함께하는 출범식, 민중과 함께 하는 한총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시민학생 한마당 개최

지난 29일(토) 전남대에서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와 출범식 평화적 개최를 요구하는 시민학생 한마당'이 진행됐다.

전남대 총동맹 40여명의 길놀이로 시작된 이 행사는 새내기들의 소고춤과 사물놀이로 시민, 학생이 하나되는 매종의 장이었다. 학생들은 시민들과 함께 한총련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서울 상경 학생들의 귀향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 등을 진행하며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를 위한 투쟁에 시민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행사 과정에서 사회자가 "지금 경희대에서는 한총련 출범식이 진행중이다"라고 이야기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지지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의 모습을 보였다.

출범식 성사위협 옥중 단식농성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청년학생 양심수들은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보장,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28일 한총련 출범식이 평화적으로 성사되는 날까지 단식농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양심수는 △7기 한총련 대의원 부산대 이희준, 최순환, 신리대 정서미 △8기 한총련 대의원 동아대 문옥주, 신리대 류은실 △동생대 '민권2' 조차시진 연구자 구자현, 윤종문, 경성대 박원하 씨 등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저모

꼭 짚어 '잠세'

한총련 출범식과 개막제가 진행되는 동안 노천극장과 경희대 곳곳에서는 보수단체들이 계속 포화. 이들은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를 받아치고 시민, 학생들에게 뿌려지는 유인물을 수거해 어디론가 계속 전파로 그 내용을 알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어떤 사람이 보수대예요?" "애! 꼭 짚어 잡세라 불러주세요." "아 꼭 짚어 잡세."

병상의 무료함을 달래준 한총련

출범식 기간 내내 각 지역총련은 경희대 정문에서 선전전을 펼쳤다. 출범식 평화적 개최보장과 출범식 의의를 알리기 위해 온갖 구호와 노래, 몸짓으로 선전전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나온 경희 의료원의 환자를, 한총련 학생들을 보며 병상의 무료함을 달랠때, 한 학생 왈 "역시 한총련은 애국대오입니다!"

식당,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학생식당에 가스가 떨어지자 학생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아주머니들에게 밥을 빨리 줄 것을 요구. 당황한 식당 아주머니들 담당 기스처를 불러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다. "경희대 식당 아주머니들, 감사합니다."

외대생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받으세요

정부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을 2000년 3월까지 플라스틱 재질의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일체 갱신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발급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미리미리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갱신대상: '99. 6. 30일 현재 만 17세 이상 전국민 (지문 입력을 위해 본인이 직접 나오시기 바랍니다)
- 갱신일시: '99. 5. 27부터 (동사무소에서 지정된 일정에 방문)
- 지참물: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택임)
2. 6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사진은 입력료후 되돌려 드리며, 사진이 없으신 분은 동사무소에서 설치된 디지털 카메라로 무료촬영해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 2000년 6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급대상자가 일제히 갱신해야 하므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반드시 통보한 일정에 맞추어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거주지 동사무소

동대문구청

현장에서 바라본 교육정책 -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반대한다”

더불어 사는 가치를 생활속에서 터득하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 모색해야

‘교육발전5개년계획’이 2003년까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제시한 교육개혁안, 시간 형태로 발표되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도입, 예산과 연계한 최초의 교육개혁안 등 화려한 미사여구로 언론지상을 누볐지만 한달 가량이 지나도, 그러나 무려 40만 부를 제작하여 배부된 계획안을 교사들의 책상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발표 후 한달 동안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을 거쳤음에도 교육부는 그 결과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반면에 공무원 연금 고갈사태와 맞물려 벌써 복지 신장자가 1만 여명을 넘으면서 초등학교는 교사의 수급문제로 비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 관료들의 실적 채우기식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과제, 교육부가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분야를 틀어쥐고 나가겠다는 국가주도의 발상과 교육부 관료집중의 계획 입안 등이 빚어낸 현실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교육발전정책이 교사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낸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조적’ ‘자기개발’을 이끌어 갈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 21세기의 교육의 올바른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의 바다를 스스로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은 정보와 시대의 정보화능 능력을 갖춘 교육의 개념이 교육목표의 우선으로 설정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교육이 사회가 필요하는 인력수급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의 여기에 종속될 때 교육은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면서 많은 폐해를 낳게 된다. 진정

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중추적인 역할과 가치관의 형성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될 위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초국적자본의 고래잡이 무한 경쟁이 낳은 폐해의 심각성이 서구사회에서 일 것으로 치부될 위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초국적자본의 고래잡이 무한 경쟁이 낳은 폐해의 심각성이 서구사회에서 일 것으로 치부될 위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초국적자본의 고래잡이 무한 경쟁이 낳은 폐해의 심각성이 서구사회에서 일 것으로 치부될 위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안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교육주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한 적극적인 실천에 달려있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교육체제의 개편과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평가제도의 강화, 교육부문에 시장 경제논리의 본격적 도입에서 찾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 대학평가와 평가를 위한 본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다목적교실 증축, 선진학교 과정을 위한 교사 연수와 교재 개발 등에 대해서도 파부에 와 닿는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건 마련없이 강행되는 교육정책은 결국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유능한 인력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과밀학급과 거대학교 해소이다. 현재 학급당 40명, 일 이상을 들어 놓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은 학교에 ‘멀티미디어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선적으로 과밀학급과 거대학교를 해소하는데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간 6천억원 규모로 3조여원이 투입되는 교단 선진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스피드 011

0...“스피드 011”은 행사기 있습니다. 오셔서 선물 많이 받아주세요”

지난주 이문별 대통령 기간엔 현란한 차림의 통신회사 도우미들이 나타나 대통령 마당을 한바탕 휩쓸고 갔는데...

앨범은 크로니클자 한마디, “놓치고 싶지 않은 대통령 기간에는 잠시 나가주셔도 좋을텐데”

(정)

0...신 동북구 마련대역 옛날 집앞과 놀이마 데려본다

요즘- 링크로 한바탕 4년 동북구, 읍면까지 해갈...

아름이 3층사 고급 옷 보시건을 보여 크로니클자 드는 생 각.

(윤)



한만중

(남서울중 교사,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신입 교육부 장관 그는 누구인가?

‘독재총장’이 ‘민주적 장관(?)’

지난 24일 김대중 정부는 2기 내각을 구성하고 그동안 1기 내각이 ‘개혁의 기본틀’을 다는데 2기 내각은 이를 완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히며 각 장관들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이번 내각구성에는 그동안 펼쳐져왔던 김대중정부의 정책들을 사실상 답습하는 것일 뿐 ‘개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학원 각 주체들의 의견은 더욱 그러하다.

신입 교육부장관으로 전임 이해찬 장관에 이어 김대중 야당 총장(새교육 공동체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됐다. 그는 2기 내각이 구성되던 날 당원 “우리의 대학원회는 다른 나라의 대학 개혁을 뒤늦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 형태의 강령적 강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의 개혁은 소수의 교육리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공동주인인 경영자와 교사, 직원, 그리고 학생이 함께하는 대학공동체를 구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개혁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입 교육부 장관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한 말에 대해 야당에 경쟁정당의 K문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신입 교육부장관을 불신하는 학원 주체들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인연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김대중 장관은 그의 말처럼 학교의 주인은 교사, 직원, 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닌 유능한 학교 경영자가 학교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단단한 듯 행동했던 그의 야당 총장 재직시절에서 비롯된다.

야당 총장들은 우리학교 용인배틀터와 같이 등록금 삭감 투쟁을 벌이며 법에 명백히 명시되지 않은 기성회비에 대해서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무수하게 쌓여온 이월금립금 330억원을 장학금과 등록금삭감에 사용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어떤자료도 제

시하지 않았고, 대외통보도 완강히 거부하는 등 묵묵 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대중 장관은 등록금 삭감운동은 했던 학생 9명을 퇴학하고 무기정학등 중징계를 내리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해왔다.

게다가 등록금을 공탁한 학생들에게는 재적 학비와 교수 면담을 통해 공탁 취하를 증명하는 등 반교육적 행위를 행했다.

둘째, 김대중 장관은 야당대학교의 책임자로서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한 것이 별로 없다. 겉으로는 ‘학생중심’을 외치지만 학생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 삭감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대하는 커널 중징계로 일관하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플랜카드를 제거하는 등 기본적인 학생행동도 보장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학생중심’이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는 학교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으며 그에게 학생들은

그저 말 잘 듣고 공부만 잘 하면 되는 것이었다고 등록금삭감 대책위 위원은 전했다.

셋째, 김대중의 교육정책은 한 가지로 일관되어 있다. 바로 ‘한국교육의 미국화’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민란의 전통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식을 강요하고 있다.

한 예로 야당 총장 재직시 미국식 학생회관을 고집하면서 학생회관을 신축하지 않고, 학생 자치활동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고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의 독단과 독선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미국화’를 주장하는 그의 경력은 미사실패선 주립대 총, 미 마리아 대 석·박사(경제학), 미 위스콘신대 조교수 등인데 이는 사실 교육정책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경력이다.

이와 관련 야당 등록금삭감 대책위에서는 ‘학교는 기업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김대중 총장이 재임하는 동안 야당의 모습은 교육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기업의 모습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학교는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며, 학생들은 그저 그의 재자가 아니라 학교에 돈을 갖다 바치는 돈보라리 뿐이다’고 심하게 비판했다.

또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논리로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그에 따라 잘 굴러가도록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이끌어 끌어들여 가지런히 두었던 창조적 지성인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인 야당에서는 학생과의 비리가 폭로되었는데, 학생자치활동 준비를 학생과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유했던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총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돈을 유유했던 학생과 직원을 비호하고, 감추었다.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사과도 책임지는 발언도 없었던 게다가 학생들은 학교 일에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그의 논리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야당대학교의 총장

대학부

비둘기철판

이문별

고맙습니다

베트남과 '99학번들(98 현준이 현도)이 감으로 모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잘 마무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단결된 모습을 부탁드리며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1학년 모교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베트남어)

알립니다

전진 사어와 학우 여러분 저희 사서부에서는 과신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에 실기 위한 학우들의 기고문을 받습니다. 이번 대동계동인 느꼈던 참이나 평가 혹은 평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학교나 학생회, 사회전반에 관한 이야기 등을 A4 1~2장 분량으로 6월 3일(목)까지 과방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진 사어와 사서부)

장하다. 어우러짐!

제 10회 통일노래한마당에서 '청년'을 먹었네요. 축하해 주시고요. 힘 좀 많이 실어주세요.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삶을 노래하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당찬 목소리 어우러짐)

했습니다

본심률: 플러넷 (가만세 사자 케이스)

본심장소: 인문관 306호 (캐비닛 옆)

연제: 6월 26일(수) 늦은 3~5시

연락처: 017-435-2085, 016-299-1401, 016-339-4431, 스칸디

나비어와 학과장님 찾아주시면 사해해줍니다.

(플러넷 주인)

28일(금) 점심시간 학생식당에서 점오후 2시까지 장지갑을 습득하신 분은 015-235-1919로 연락주세요.(28만원 들어있음)

(지갑주인)

왕산골

알립니다

슬럼업이 2번째 오디션을 합니다.

때: 6월 3일(목) 늦은 5시

곳: 교양관 406호

출을 사랑하는 분들 태피드 지참하여 참석이제라고 오세요.

(슬럼업)

예수 전도단 종강예배

때: 6월 3일(목) 늦은 6시

곳: 학생회관 413호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중국과 원어 가요반 공백이 11~12기 정기공연을 합니다.

때: 6월 2일(수) 늦은 5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곳: 후북관 소극장

많이많이 오세요.

(중국어과)

제 20회 혁명 노래와 1학기 종강총회가 열립니다.

한 학기를 정리하는 자리이니 꼭 참여해주세요.

모두 모여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때: 6월 3일(목)

(노여와 학생의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인문인들! 대통령 치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9 새내기)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서평-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사랑, 인간의 실존문제에 대한 해답

훈련, 인내, 인격적 성숙을 통한 '사랑의 기술' 터득해야...

우리는 한번쯤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이다. 그 경우는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와 이별한 후, 아이에게 당신의 뜻을 물리고 싶었거나, 또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잘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지는 보람감을 느끼고 아이의 손가락을 자른 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출세한 후 뒷바라지를 성실히 한 애인을 배신한 한 남성을 보면서 등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에서보다는 진정한 인간소외현상이 극에 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인간실존의 문제의 해답으로서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필자도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서평에서 우연히 고른 에릭 프롬(Erich Fromm)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진지하게 사랑의 본질과 실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인간소외현상이 극에 달한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실존 문제의 해답으로서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여기서의 사랑은 모성애, 부성애, 동료애, 자기애, 성애, 신애에 대한 사랑을 모두 말한다)은 기술이라고 하는 견해(즉 사랑을 단지 단순한 감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를 역설하고 있다.



과 마찬가지로 기술이 필요하다)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을 에릭 프롬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 또는 사랑받을-올바른 대상의 발견이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셋째, 사랑을 하게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혹은 좀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한다.

우리(정신적인 인간이라면)는 분명코 사랑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한 사랑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견해가 에릭프롬이 위에서 지적한 경우 (사랑은 단순한 감정과 같다)와 같아서 제대로 사랑을 하지는 못했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실패를 했으면 그 원인을 찾아 고쳐서 다시 행하는 것처럼 사랑도 실패를 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랑

에 대한 인식이 그토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인식함이 그 폐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우리의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이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분명히 최초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추상적인 단어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모든 일관인)와 또 그가 속하는 집단에서 사랑을 받고 때로는 주며 어느 정도까지 자랄 것이다.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에 대한 눈을 뜨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오래 이성과의 사랑을 할 것이다.

때로는 이성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사랑을 느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충격을 당할 경우 그 절대자에 대한 사랑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은 인생 전반에 걸쳐 사랑에 구속되어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어느 누구도 이 면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랑. 우리 인간은 왜 그런 감정을 자아하는 하는가 라는 의문

이 든다.

본질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사랑을 해야 하는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가? 에릭 프롬은 사랑이라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 소외감(에릭 프롬은 모체로부터 인간이 분리 되었을때부터 인간은 그 비탈감을 이겨내기 위해 사랑을 필요로 한다) 등을 통한 감정의 승화를 거론한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단순한 감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로 여긴다면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견정하고 만족스러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대사회는 매시간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이다. 그 만큼 인간은 그 사회에 종속되어서 한낱 기계의 부품으로써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물론 같은 부품이라도 거기에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white-collar, blue-collar(또 최근에는 gold-collar이라는 계급도 생겼지만))라는 엄격한 구분이 있지만 다르다.

어느정도 인격적 성숙 후에 사랑을 한다

성숙한 후에 사랑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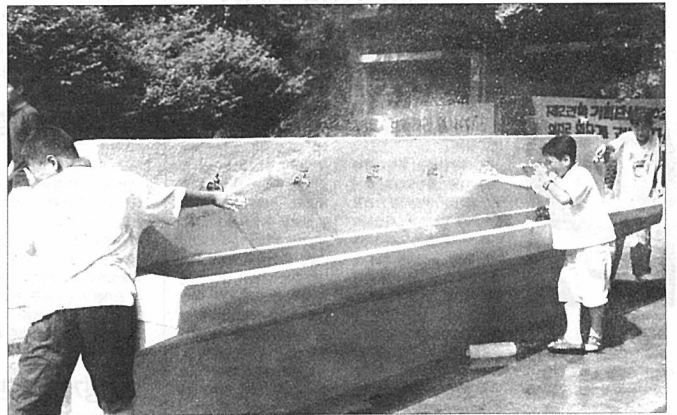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안전 하리라 생각된다

어렸을 인간은 내재적 소외감, 비탈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안겨주는 상처인 극도의 인간소외감을 품고 살아간다. 이러한 허탈감을 줄기 위해 인간은 우리의(?) 위대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치, 향락, 퇴폐적인 유흥들에 쉽게 빠진다. 인간은 돈을 가지고 순간적인 충구를 찾으려 그러. 그러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거기에는 아이와 어른의, 남성과 여성의 예외가 없다. 하지만 그런 순간적이고 또한 즐기고 난 후의 더 큰 허탈감을 느끼는 단순한 차원의 사랑(이전 엄밀히 말해서 사랑이 아니다. 구속이다)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좀 더 차원 높은 사랑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랑의 기술(혹은 방법)-심은 기술이라는 것은 별 것 아니다. 자라는 훈련, 인내, 정신집중,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인격적 성숙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즉 어느 정도 인격적 성숙한 후에 사랑을 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리라 생각된다. 을 몰라서 현실적이기도 그 만큼 더 고독해지고 우울해진다. 이러한 시대에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기회를 갖는 것이 내게는 참신한 충격이었고 좋은 가르침이었다. 여기서 난 이론적 가치(철학적으로 불리는 식의)에 대해 논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이대열
(법·법학 3)



사진수필

외대인들이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시원한 여름이 왔다. 교정에서 신나게 물싸움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여름 분위기를 더해준다. 물방울 속에 무지개가 생겼다는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릴적 동심을 자극한다. 잠시 아이들과 함께 물장난을 하며 동심을 느끼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 지난달 30일(일) 서울배움터에서 물싸움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정효정 기자

'국민' 간판을 내리시

오늘 국민의 간판을 내건 김대중 정권하에서
빛어지는 국민의 고통과 수난은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총련 대의원대회 원천봉쇄와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제의 대하회가 전면적 탄압으로
막으려 하는
김대중정권에 국민은
더이상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실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 간판을 내리시오.

민족자주연론
외대학보

